전북도내 국도, 시원하게 '뻥~'

도, 부안~흥덕 구간 등 4곳 · 탄소산단진입로 건설에 올 예산 26억 투입 설계 착수

전북도는 국가계획인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부안~흥덕, 임실~장수, 무주~설천, 완주 화산~운주 국도와 전주탄소산단 진입도로를 올해 예산 26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 중순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가 4,958억원이며 총연장은 62.72km로 4차로 확장과 2차로 시설개량을 추진한다.

국도 23호선 부안~흥덕 국도 건설(25.5km)은 1,497억원이 소요되며 김제~고창구간 중 부안~김제, 흥덕~고창구간은 모두 4차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나 2차로인 부안읍에서 흥덕면까지를 4차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30호선 무주~설천 국도 건설(10.9km)은 사업비가 1,380억원소요되며 무주읍에서 설천면을 잇는 4차로 확장으로 태권도원 개원과 함께 각종 국내·외 대회의 원활한 행사지원과 덕유산국립공원, 무주스키장 등의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실시설계 보완시행 후 2019년도에 공사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국도 건설(21.9km)은 총사업비가 1,624억원으로 오수면에서 장수읍까지로 비행기재, 차고개 등 급커브, 급경사로 동절기 빙판길로 인한 통행불편 구간을 2차로 시설개량을 통해 동부산악권 지역개발과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9년에 공사발주 할 예정이다.

완주군 화산면 종리에서 운주면 장선리까지의 급커브, 노폭협소 등 선형이 불량한 구간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터널 신설 등 2차로 시설개량을 통해 대둔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이 기대되는 국도 17호선 완주 화산~운주 국도 건설(3.12km)은 총사업비가 181억원으로 내년도에 공사발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수송 원활과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산단 진입도로 건설(1.3km)는 총사업비가 276억원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2019년에 공사착공 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들은 그간 전북도와 정치권,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공조 협업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 국가예산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 10개노선(102km, 6,42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노선(20km, 4,096억원)의 사업전체가 추진하게 되어 지역개발 견인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전북도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도로안전성 개선 등 국도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 등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국가유공자 화합 최선"

이의산 신임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 취임

이의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이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에 취임했다.

24일 전북보훈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지부장을 회장에 임명했다.

전북보훈단체협의회는 전북 보훈회관 내에 입주한 모든 공법단체의 권익보호는 물론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회관 운영을 담당한다.

이의산 신임 회장은 "전북도내 국가유공자와 회원님들의 화합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5월 23일까지다. /김진성 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요

전주페이퍼에서 전북기업환경협의회… 우수환경인상 시상식도

전북기업환경협의회(회장 정명운, ㈜전주페이퍼 상무)가 24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개최됐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는 기업의 효율적 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환경분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행정(도) 및 도내 5개 산업단지, 28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되어 행정기관과 기업의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환경협의회는 환경사고 대비를 위한 자율방제단 운영 및 지역하천사랑 운동, 산사랑 운동 등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을 선도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 공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행정(도)에 건의하여 직접 또는 중앙부처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17회 우수환경인상' 시상식을 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행복흘씨 입양사업 등 환경보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에서 수여한 공로상에 전라북도 임영환 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지사상 3명, 전북기업환경협의회장상 6명 등 총 10명을 시상했다.

도 이승복 환경녹지 국장이 참석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어려운 도내 경기에도 기업이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환경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실무자들이 더욱더 환경보전과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발전 계승시키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 아시안컵 유치에 안성맞춤이랍니다"

전주시는 24일 '2023 AFC 아시안컵'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AFC(아이사축구연맹) 실사단에게 시민들의 축구 열정을 바탕으로 아시안컵대회 개최도시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관련기사 4면〉

노동력 · 생산비 절감… 벼농사 신기술 보급

전주농협, 전미동 월평부락서 벼 밀묘 소식재배 이앙 영농연시회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4일 최근 덕진구 전미동 월평부락 일원에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획기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벼농사 신기술 보급을 위해 쌀 재배농업인 및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진 벼 밀묘 소식재배 이앙 영농연시회'를 했다.

벼 밀묘 소식재배 농법은 벼 육묘상자 당 볍씨를 250 ~ 300g을 파종하여 15일~20일 동안 육묘 후 주당 3 ~ 5본, 평당 50주를 이앙 재배하는 신기술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밀묘 소식재배를 할 경우 10a 당 모내기에 소요되는 모판수가 8판정도 가능해 기존 이앙대비 모판수를 2/3 가량 줄일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를 70%정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력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김제백산농협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날 연시대회와 더불어 전주농협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잔류허용물질 관리제도)교육과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 결의도 함께 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한옥동 완공을 앞두고 최근 축원문을 봉안하는 상량식을 가졌다.

인공 건조 목재로 지어진 '한옥동' 연말 완공

전북대 법전원, 축원문 봉안 상량식… 목조 건축물 단점 보완

상량문 최남규 인문대학장 짓고 하석 박원규 선생이 글 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축 법학전문대학원이 한옥동 완공을 앞두고 최근 축원문을 봉안하는 상량식을 가졌다.

그간 목조로 된 한옥 건축물들은 목재를 건조하지 않고 사용해 곰팡이나 뒤틀림, 갈라짐 등이 취약했는데,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은 인공으로 건조한 목재로 지어진 국내 최초의 한옥 건물로서 목조 건축물이 갖는 여러 단점을 보완했다는 특징까지 담아내고 있다.

국비 등 161억 원이 투입돼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전북대 법전원은 올해 한옥동이 준공된 뒤 내년에는 현대식 건물까지 모든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한옥동과 함께 뒤편에는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뤄 웅장함을 더하고, 가장 한국적인 전북대 캠퍼스에 품격을 더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량식은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릴 때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으로 전통 한옥의 가장 큰 건축 의례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상량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법전원 교수, 시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해 경건하게 상량제례를 올렸다.

이 건물의 중심에 있는 마룻대의 상량문은 최남규 인문대 학장이 짓고, 전북대 법대 동문이자 국내 최고 권위의 서예가인 하석 박원규 선생이 썼다.

여기에는 건물의 건립 역사를 알 수 있게 날짜와 함께 '乾止飛閣 盡東南之蛟鳳(건지비각 진동남지교봉), 全法俊彩 爲四海之輝光(전법준채 위사해지휘광)'이라는 축문이 적혔다.

이는 '건지의 높은 고각, 동남아의 영웅준걸 다 모여있고, 전북대 법전원 인재, 세계의 밝은 빛 되리라'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남호 총장은 "지난해 착공한 법전원이 곧 한옥동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곧 오랜 숙원이었던 법전원의 위용이 드러날 것"이라며 "법전원이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6 · 13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김승수 "문화 번영, 경제성장 열겠다"

"관광 · 기업 · 금융 · 농생명 · 사회 등 5대 분야서 큰 꿈 키울 것"

6 · 13 지방선거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문화 번영, 경제 성장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 놓으며 재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선거 관련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전주가 문화 대표 도시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위상도 키워나가 찬란한 전주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광경제 ▲기업경제 ▲금융산업경제 ▲농생명산업경제 ▲사회적경제 등 전주시민들과 함께 5대 분야에서 전주경제의 큰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진행, 컨벤션 산업, 문화제조업 등을 아우르는 전주만의 경제모델을 키울 계획이다.

또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 등 스포츠 레저산업과 탄소복합재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대학원을 유치해 금융산업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김승수 후보는 "지금 전주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인맥과 경험이 축적된 힘 있는 재선시장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찬란한 전주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른바 '봉침사건'과 관련한 관내 한 장애인단체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임시절이나 그 이전 티끌만큼의 특혜나 비호는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팩트)에 의하지 않은 더 이상의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이현웅, "경험 · 능력 갖춘 후보가 선출돼야"

6 · 13지방선거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가 24일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후보등록 후 찾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4년 전주시정은 거꾸로 간 4년"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전주시장선거는 침체된 전주를 벗어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만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288-9700